

<b>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b>	회차	10차
	일자	2021.02.15
	장소	ZOOM 화상회의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	○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X	○	○	11/13

##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자체 입학식과 OT 진행 예정. - 3월 중 재선거 진행 예정. - 일부 단위가 개강하여 관련 일정 공지.
경영경제대학	- 강의계획서 미비사항 전달 완료.
사범대학	- 새내기 대상 비대면 행사 기획단 모집 완료 - 강의계획서 미비 조사 완료함.
사회과학대학	- 새내기 환영 현수막 걸기 위해 문구 공모 진행 중. 인스타 필터 제작. 신입생환영회 영상 제작 완료. - 오늘 등록금환불 요구를 위한 학내 언론사 기자회견 및 릴레이 해시태그 진행.
약학대학	- OT 2/27에 진행하기로 함. 공식적 OT 대신 온라인 행사로 대체.
예술대학	- 영화과에서 졸업영화제를 온라인으로 진행 중.
의과대학	- 2/8 본과 2학년, 3학년 개강하였고 이번 주 본과 1학년 개강하였음. - 2/25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대면 진행
인문대학	- 사과대 2학기 등록금환불 기자회견 및 해시태그 진행 - 성적장학금 관련 문제 있어 교학지원팀과 협의하여 해결 - 수요일 전공개방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 진행 예정. OT 3월 첫째 주 진행. 입학식 영상 제작 하여 각 학과에 제공 예정.
자연과학대학	-
통일공대	- 계산기 공동구매 업체와 미팅 - 학생회실 침수 복구 위한 랜선 교체작업 예정.
동아리연합회	-

## 2. 보고 안건

### 1. 총학생회장단 보고

행정부처 간 간담회, 등록금환불협의체 2차 회의 정보보고 진행

###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b>중앙집행위원회</b>	교양과목 강의계획서 신고 담당부처 전달완료
	기숙사 운영개선 관련 설문조사 진행 중
	중대중심 게시판 리뉴얼 진행 중
<b>산하위원회</b>	평등 가이드라인 제작 중 시각장애인 안내견 교내 건물 출입가능 스티커 부착 준비 중

### 3. 논의 안건

#### 1. 리더스포럼 진행 관련

현장 참가 대상 및 질의 방식 논의

##### 일정 초안

일시: 2월 24일 수요일 13시~18시

방식: 단과대 회장까지 현장참석, 이하 ZOOM 참관  
전반적 진행 방식은 작년과 동일

총: 일정초안은 일전에 공지방에 말씀 드린대로 2/24일 수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진행이 되고 기존 학생 지원팀에서 총학생회에 넘겨준 초안은 단과대 학생회장까지만 현장참석을 하고 이하 나머지 대표자분들은 ZOOM으로 참관을 하는 것을 권유 해 주셨다. 또한 전반적 진행 방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 될 예정이다. 저번에 대표자분들께 현장참석 대상인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본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ZOOM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여쭙보려고 한다. 2단계로 하향조정이 되었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현행 유지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대표자 분들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단과대 부학생회장까지는 현장참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학과 학생회장 같은 경우 코로나19 위험이 있으니 ZOOM참가가 좋다는 의견이다.

총: 우선 작년을 예시로 드리자면 단과대 학생회장만 참석을 하더라도 현장참석 인원이 약 40명~50명 사이이다. 그래서 단과대 부학생회장님까지 참석을 한다면 한 70~80명이 동일한 장소에서 리더스포럼이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를 고려해서 회장만 참석하는게 어떨지 싶은데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안성캠도 전부 오는지?

총: 네 안성캠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진행한다.

인문.정: 안성캠까지 고려를 하면 단과대 회장까지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경경.정: 경경대 단과대 회장만 참석하는것에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 동의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간호.비: 간호대학 동의한다.

의과.부: 의과대학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도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학 동의한다.

총: 대부분의 대표자분들께서 찬성해주신걸로 알고 현장 참석 대상은 단과대 회장으로 제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작년 리더스포럼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시간부족으로 인해서 현장질의가 진행되지 않은 단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리더스포럼은 작년에 비해서 1~2시간 정도 연장이 되었고 질의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질의를 먼저 총장에게 송신을 하고 현장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질의를 해서 좀더 핵심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간호.비: 의견 있다. 저희가 미리 질의서를 작성해서 드리는 건 작년에도 그랬었고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얻는 게 중요하긴 한데 총장님뿐만 아니라 부총장까지 총장단 자체가 답변을 할 때 미리 질의서를 좀 읽고 오도록 답변을 미리 준비해오도록 좀 준비 하는게 좋을까 가서 똑같은걸 읽어드리고 거기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럴꺼면 왜 질의서를 미리 보내는지 모르겠다, 사실.

총: 네 해당 내용은 미리 답변을 생각해보라고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다. 작년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준비한 대본을 일일이 다 읽으면서 질의시간을 소요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 리더스포럼때는 좀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를 하고 미리 질의서를 보낸 뒤에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러면 저희가 대표 질의를 좀 정리를 해서 총장께 미리 파일을 첨부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지? 그러면 대표자분들도 조금 더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호.비: 그 리더스포럼을 가는게 저희가 직접 질문해서 총장단에게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떠시냐 라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 게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한다 사실. 왜냐하면 질의하는 내용 자체도 단위요구안 기반일거고 단위요구안 기반이면 그냥 답변은 서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보다 총장단의 반응을 보고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 게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총장단에서 브리핑을 꼭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단위별로 돌아가면서 추가질의를 하는 건 어떨지?

총: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고 총장이 먼저 답변을 한 다음에 그 답변을 토대로 추가 질의를 하자는 것인지?

간호.비: 저는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혹시 밑에 전반적 진행 방식은 작년과 동일이라고 써 있는데 작년에 사실 리더스포럼이 몇 시까지 진행되는지랑 어떤 순서를 갖고 있는지를 미리 타임테이블을 받고 간 게 아니라 가서 현장에서 타임테이블을 받았다. 근데 그러면 이번에도 총장단에서 마스터플랜 발표라든지 자기네 학교 사정 발표 이런 게 끼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질의응답만 하는 시간인지?

총: 제가 전달 받기로는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마스터플랜을 비롯해서 총장단의 말씀이 있을 예정이고 질의순서는 안성캠과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좀 미리 질의순서를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질의순서는 안성캠과 논의를 한 다음에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혹여나 리더스포럼때 시간이 부족하다면 추후 서울캠만 총장단 간담회를 개최해주겠다 라는 학생지원팀의 답변이 있었다. 그럼 간호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총장의 답변을 토대로 추가질의만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내용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 해당 내용은 동의하고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마스터플랜과 브리핑 시간을 갖는다고 했

는데 1시간 30분동안 리더스포럼에 브리핑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아서 최대한 1시간 정도로 간추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작년에도 추가질의가 많아서 리더스포럼이 짧린 것이 아니라 총장단이 학교의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짧렸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1시간 정도로 간추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로 마스터플랜이랑 사전 자료의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받아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리더스포럼 자리에서 발표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고 그 후나 사전에 자료를 전혀 받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던 점이라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린다.

총: 제가 1시간 30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확정이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약 1시간 30분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사과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사전자료 취합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마스터플랜 설명 시간을 좀 축소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간호.비: 그리고 저 의견 하나 더 내고 싶은게 있는데 사과대 말씀하신 것 동의하고 서울캠 안에서도 질의 순서라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것 먼저 질의하고 이런거를 짤 텐데 그러면 이제 안성캠과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협의 내용을 어느 순서로 질의를 할지 이러한 내용을 좀 학교측에 전달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게 작년같은 경우에도 안성하고 서울캠 안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질의 순서를 대충 짜갔는데 학교측에서 이번에는 안성이 말해봐라 이번에는 서울이 말해봐라 이런식으로 하니까 순서가 꼬여서 질의순서가 완전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리더스포럼 타임테이블을 미리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할거고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안내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좀 짤 수 있지 않을까.

총: 제가 우선 2월 18일까지 단과대 질의서를 수합을 하고 안성캠을 논의를 진행한 다음에 그 질의 순서대로 자료화해서 학교본부측에 넘겨드릴 예정이다. 간호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의견 부탁드린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도 동의한다.

의과.부: 의대도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대부분의 대표자분들께서 찬성 해주신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리더스포럼 전에 요청한 단위요구안의 답변은 제가 오후 중으로 전달 받았고 현재 단과대별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대표자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다. 회의 끝나고 즉각적으로 단과대별로 전달을 해서 답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그 답변 보시고 현장질의 2가지 정도 선정하셔서 질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공지해드리도록 하겠다. 혹시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신지?

간호.비: 여기 ZOOM 참관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작년 같은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올해도 이제 현장에 있는 회장분들만 질의가 오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단위에서는 거의 질의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참관 말고 ZOOM으로 하고 있는 단위는?

총: 제 경험상 ZOOM을 통해 질의를 하는 것 보다 그 질의를 단과대 회장님께서 취합을 하고 단과대 회장이 직접 질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것 같다.

간호비: 네.

총: 왜냐하면 ZOOM에는 몇백명의 대표자분들께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질의를 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리더스포럼때 나왔던 추가질의 관련된 것은 추후에 또 차후 질의를 통해서 학교본부에 요청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질의 없으시면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 2. 등록금환불협의 관련

자료 검토 진행

등록금환불 대책논의

총: 제가 3시간 전에 공지방을 통해 공유해드린 자료 검토하고 회의 참석하셨으리라 생각된다. 검토시간 3분정도 드리겠다. 3분간 검토 후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총: 우선, 제가 자료를 받고난 후에 개인적으로 예산팀장님이랑 미팅을 진행했었다. 전달받은 사항들 잠시 설명해 드리겠다. '가'에 가용재원 6억 출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6억원은 일반 경상비를 줄인 금액이라고 한다. 원래 6억을 미집행하였으면 기금 인출을 줄이거나 기금으로 회수했어야 하는데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회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3번에 2월달 재원 부족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 금액이 141억원정도 된다. 해당 금액은 각 부서에서 학교본부에 요청한 이월액이고, 대학 본부가 강제적으로 이월하지 마라 이월해라라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우선 이월요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불가한 명목들에 대해서만 승인된다고 하고, 2월말에 예산이월요청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 '바' 최근 3년간 적립금 수입 현황을 보시면 2017년 결산부터 2019년 결산까지 적립금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감가상각 총당금 명목으로 기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신다. 현재 2020년 가결산 자료를 보면 156억을 사용해서 작년에 비해서 100억을 웃도는 금액이 감액되었고, 2021년도에도 290억을 사용할 예정이라 내년도 적립금은 870억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신다. 학교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해주셨다. 이상이다.

총: 자료검토시간 끝이 났다. 자료를 보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자분들의 의중 여쭙고 싶다.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생각을 말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나'에 보면 재정부족 원인 자료가 있고 지출증가에 기타 비대면 학사 지원 증감 3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기타 비대면 학사 지원이 과연 어떠한 돈인지, 어디다 썼는지 혹시 알 수 있는지?

총: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학위수여식에 5천만원 사용했고, 보조인력 인건비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운영 지원 및 보조 인력에 약 2천5백만원 사용했고, 우편발송 졸업 입학 학사 관련 서신을 발송하는 데 약 8백만원 사용했다. 카메라 구매 전화기 설치 공사 등 원격강의환경조성을 위해 1천백만원 사용했고, 입국 유학생 관련 소독 및 방역의 명목으로 1억3천2백만원 사용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그리고 사진전 등 기타 지원비용으로 약 5천3백만원 사용해서 약 2억8천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다. 답변이 되셨을지?

인문.정: 네 일단 감사하다.

사과.부: 질의 있다. 오늘 주신 '나'의 자료에서 지출증가의 3개의 항목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2020 가결산 자료에서 이 항목들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 오늘 받은 자료에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등으로 세분화되어서 적혀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받았던 2020 가결산 지출항목에서 이 세 항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

총: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등심위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교내 방역, 기타 비대면 학사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지?

사과.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가 보다 지출항목의 큰 항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만나와있으면 괜찮다.

총: 알겠다.

총: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금차 회의에서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등록금환불 3차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안성캠과 지속적인 컨택을 통해서 안성캠도 선별적 지급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양캠 모두 보편적 지급으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린다. 혹시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총: 질의 없으시면 대표자 분들 의견 수렴하고 3차 회의 때 어떤 내용을 요구할 것인지,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 갈 것인지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총: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학생 측이 학교본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요청했다고 생각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환불협의체 3차 회의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또한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2020년 결산 자료는 2월 28일 교비집행 완료하고, 3월 달에 결산한 다음에, 4월 달에 회계감사 받고 OK 되면 5월 중순에 결산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공.정: 총학생회장님 방금 해주신 말씀 혹시 다시 한 번 해주실 수 있는지?

총: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경 예산안은 2월 25일에 학우들을 대상으로 전체 공개할 예정이며, 2020년 결산자료는 2월 28일 교비집행을 완료하고 3월달에 집행내역을 바탕으로 결산을 하고 4월달에 결산내역을 바탕으로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한다. 4월달 회계감사에서 OK가 된다면 5월 중순에 모든 학우들을 대상으로 결산자료를 공개한다고 한다. 답변이 됐을지?

통공.정: 네 감사하다.

간호.비: 질의 있다. 그러면 결산안을 공개를 하게 될 때, 2020년도 모든 결산이 끝난 후지 않은가? 2020년에 남은 잉여 예산은 이월이 되는지? 2021년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사용 되는지?

총: 해당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41억이 이월될 예정이라고 한다.

총: 작년에는 2019년에 2020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81억이고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141억이라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여쭙봤다. 이유가 2020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인해서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각 학교 부서장들께서 이월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80억에서 140억으로 증액되었다고 한다. 증액된 거에 대해서 학교본부가 각 부서장들에게 이월하지 마라 해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한다. 141억이 책정된 이유는 교학지원팀을 비롯한 각 학교부서에서 다 이월요청을 해서 141억이 책정되었다고 답변 받았다. 그래서 141억의 돈을 특별장학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할 때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예산팀장님이 개인적으로 밝히신 바는 아마 각 부서장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실거다라고 하셨다.

간호.비: 결론적으로는 6억만 가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총: 맞다.

간호비: 간호대학 의견을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저번 단운위 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의견을 취합했다. 요청 드린 자료에서도 학교가 재원이 없다는 것이 증빙되는 자료인 것 같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6억이고 플러스 1.2억, 그런데 그 1.2억에 대해서도 특별장학금 형태로 기금으로 하신 거라서 이걸 보편적 지급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저번 회의에서 말씀드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인 6억만을 보편적 지급으로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총: 저번 회의 때 간호대 위원장님께서 1억 8천에 대한 명목을 질의해주신 걸로 기억한다. 오늘 여쭙봤다. 우선 교직원노조에서 특별장학금의 명칭으로 기부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특별장학금의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간호비: 특별장학금이라고 한 것은 어쨌든 간에 장학금이랑, 학교에서 처음에 말했던 선별적 장학금의 형태와 같은 명목인 것 같아서 그렇게 불렀다. 어쨌든 간에 6억만 보편적 지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현 상황 고려해서 6억만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더 요구를 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총: 개인적으로 1억 8천도 특별장학금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면 저희가 등록금환불을 요구하는 배경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별장학금 그리고 등록금환불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7억 8천까지 가용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간호비: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끌어올 수 없는 것 아닌지?

총: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다.

예대.정: 적립금 내역을 볼 때, 적립금에서 장학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학교 측에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지?

총: 장학기금은 다 꼬리표가 달려서 들어오는 기금이다 보니, 학교본부 자율적으로 장학기금을 특별장학금으로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대.정: 꼬리표가 달린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총: 목적이 정해져서 쌓인 적립금이라는 것이다.

예대.정: 지금까지 그렇게 쓰인 것은 알겠는데,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니깐 적립금이 이렇게 쌓였는데, 지금 보니까 건축 기금으로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장학기금을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다.

총: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에는 20억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학기금도 많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예대.정: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출된 것 같고, 저희가 학교 측에 조금 더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적립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안 쓰고 적립만 한다기 보다는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학교에서 준다고 할 때, 이 금액을 건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학교 측의 답변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다.

간호비: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부처 간담회 진행할 때, 예산팀장님하고 기획처장 있을 때 적립금 설명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 데, 그때 못 쓴다고 답변 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부총: 지금 임의 기금 중에 건축기금같은 경우는 사학법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차입하라고 요구하긴 힘들 수 있으나, 그리고 장학기금의 경우는 모든 장학금이 용도가 지정된 장학금인지 혹은 학교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명목의 기금이 있는지는 다시 알아봐야겠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을 가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은, 지금껏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의 가결산이나 본예산을 근거로 해서 요구할 사항은 이제 없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부서에 배정된 예산을 다시 등록금환불 명목으로 전용해라 혹은 적립기금에서 가용예산을 끌어 모아서 풀어라 이 두 가지 방향만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 7.8억에 대해서 학생 측이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 나갈 것인가를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금액에 대한 요구를 할 건지도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예대.정: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립금에 대해서 이 적립금이 어떻게 쌓이고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총: 우선 행정부처간 간담회의 답변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중에서도 임의장학기금, 일반장학기금 등이 있겠습니까라는 임의라는 말이 붙어도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본부가 자율적으로 장학기금을 특별장학기금 그리고 등록금환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인문.정: 질문사항이 있는데 혹시 지난 학기 장학기금에서 임의장학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총: 사용한 바 있다.

인문.정: 사용을 했었는지 지난 학기에는?

총: 네.

인문.정: 그러면 지난학기에는 이미 장학기금을 사용해서 등록금환불의 재원으로 사용을 했는데, 왜 이번학기에는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답변주실 수 있는지?

경경.정: 해당 내용은 제가 행정부처 간담회 참석했을 때 들었던 바로는 임의 장학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이미 1학기 때 전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전달받았다.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남아있다고 말씀해주신 금액은 7.8억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총: 그래서 지금부터는 7.8억을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하지 말자, 이런 이유 때문에 수용하지 말자 두 가지 안건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대표자분들 의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예술.정: 예술대학은 7.8억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총: 예술대는 수용하자라는 의견 내주셨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사과.부: 사과대 질의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혹시 이전에 예비비 항목을 사용한 전례가 없었는지?

총: 예비비 사용 전례가 있냐라고 질의해주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학교본부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관련 자료는 없는 것으로.

사과.부: 제가 지속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궁금한 사항은 저희 예비비가 지속적으로 61억이 예산안에 편성되어있고, 지출에서 해당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는 건지 합쳐서 넘어가는지는 모

르겠는데 지출에 사용되지 않고 해당 회계에서 등록금회계가 45억원이나 편성되어있는데 왜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지 학교본부에 의문을 가지는 입장이다.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나 상황 등에 대비한 것으로 관련 조항 4조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조항을 못 찾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학교가 공개하는 아이북 문서열람자료를 보면 예비비가 특수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예비비가 61억씩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다.

총: 60억이 계속해서 이월되는 이유는 부회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다. 보통 40억 정도, 본예산의 1%는 예비비로 책정해서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남겨둔다고 한다. 학교 본예산이 4000억이기 때문에 1%로 40억을 둔 것이다. 나머지 20억은 어디서 왔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인건비가 인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해서 21억을 책정을 해서 61억이 예비비 명목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기금으로 회수가 되거나 다른 명목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다.

사과.부: 추가적으로 질문하자면, 20억이 인건비에서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출에서 결산에서 왜 따로 인건비 항목으로 더 지출이 증액되서 나가지도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비비가 20억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되어있었으면, 이번 지출에서 인건비 인상이나 퇴직금 관련해서 총 교원보수 및 직원보수 관련 36억이 증액이 됐었는데, 그러면 20억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써서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건비 인상과 퇴직금 반영은 따로 인건비 항목에서 지출하면서, 관련 예비비 20억을 인건비를 대비해서 책정했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학교가 왜 돈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이나, 학교 측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전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해서 해당 항목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서 7.8억에 대한 가용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총: 정리를 하자면 2020년 본예산에 책정된 61억을 등록금환불에 가용한지 질의하자는 말씀인지?

사과.부: 네

총: 그렇다면 이 예비비 61억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만 답변을 받는다면 답변이 되실지?

사과.정: 저희가 등록금환불을 더 많은 액수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지, 단순히 7.8억을 납득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앞선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사회과학대학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7.8억의 가용예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차 중운위 회의 때도, 임시회의 때도 학생사회와 중운위 차원의 행동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문대와 함께 릴레이 해시태그라든지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기도 하다. 저희가 지금 등록금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학습권이라든지 학교 시설 불이용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학교 가결산안을 바탕으로 가용예산이 없으니깐 7.8억을 받아들이자라는 결론에 이르기보다 학생들이 등록금환불을 요구하는 배경은 이러한 것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학교 측에 추가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중운위가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이지 회계전문가가 아니고, 주어진 자료를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울뿐더러, 단순히 어려움의 문제를 넘어서서 애초에 자료분석과 협의체를 통해서만 7.8억 이상의 금액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나 차기 연도로 이월된다고 학교에서 말씀하셨던 금액이나 예비비 등을 조금 더 풀어서 사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 드린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열람하는 자료가 중운위의 자료일 뿐이고, 대외비라 학우들은 보지도 못하는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그래 학교에 돈이 정말 없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저희가 할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면 좋겠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과대 의견이다.

인문.정: 인문대학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문대학도 사과대와 동일한 입장이고 동일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인문대운영위원회도 7.8억이라는 금액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생 대표자로서 학교본부에 협의

체만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회계 자료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도 없이 7.8억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총: 두 단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학생들의 여론을 모아서 요구의 힘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중운위 회의에선 논의를 하는 시점에서는 저희 각자가 대의기구로서 3차 협의에 어떤 노선을 가지고 학교에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과 가결산이라는 명목으로 불리는 수치상에서는 7.8억 이상의 재원마련은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따라 나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요구를 할 때에는 사과대에서 말씀하신 예비비의 사용, 혹은 적립기금의 사용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추가 가용예산 요구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니면 회의 전개 과정이 불합리했을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여론을 지켜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

간호비: 우선적으로 7.8억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쨌든 간 설문을 통해서 학우분들께서 어느정도 수치 환불을 원하는지 조사했기 때문에 해당 의견을 반영해서 그쪽 방향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찾아봐야 하는 건데, 사과대에서 말씀해주신 예비비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학교 예산회계규정 3-21 예비비가 나와있더라. 예비비 사용 관해서는 총장이 결정한다고 나와있고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왜 넘겼는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도 예비비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료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3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등록금협의체에서 논의가 중단되었던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강하게, 저희는 보편적 지급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총: 우선 3차 회의는 근시일내로 소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비비 관련해서 자료를 또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회신이 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내일 오전 중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는지 예산팀에 문의를 하겠다. 문의를 하고,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보편/선별적 지급같은 경우에는 안성캠도 보편적 지급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전달을 했고 보편적 지급으로 학교본부도 방향을 돌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표자분들은 3차 회의가 언제 소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간호비: 우선적으로 예상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전에 3차에서 끝낼 게 아니라, 3차 이후에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다고 생각된다.

경경정: 금주 내로 한번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주 내로는 너무 늦을 것 같고, 내일 오후 중에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동의한다.

간호비: 더불어서 예비비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고 오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총: 만일 회의 소집을 한다고 한들 예비비 관련 자료가 오지 않으면 3차 회의 때 논의할 안건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경경정: 그럼 예비비 자료가 회신되는 일정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빠르게 소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 우선 내일 오전중에 최대한 빠르게 예비비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하고 만약에 예비비 관련 자료가 회신이 온다면 빨리 3차 회의를 소집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내일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3차

회의 때 질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로 자료를 마련해달라라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일 3차 회의는 소집을 하고, 회신이 오나 안 오냐에 따라서 1차안 2차안을 좀 수립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간호비: 우선적으로 학교 측에서 보편적 지급이나 선택적 지급이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경경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지급 방향으로 협의를 완료해놓고, 예비비 관련해서 물어보면서 더 금액을 높일 수 있는, 환불금액을 높일 수 있는 가용예산 끌어오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총: 보편적 지급으로 학교 본부도 하려는 것 같다.

간호비: 더불어서 예비비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와 함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왜 안 되는지를 함께 요청하면 시간 절약하고 예비비 자료만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바탕으로 또 협의를 하고 하기보다는 한번에 요청해서 담당부서 말을 듣고 중운위 논의하고 협의체를 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경정: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비단 예비비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회의를 하면서 사과대의 입장을 이해를 했는데, 예비비가 만약에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없다고 했을 때 중운위 측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7.8억을 받아들일지 추가적으로 가용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새롭게 요청할지 각 단과대에서 입장을 취합해서 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호비: 간호대 동의한다.

사과정: 저희가 쏘아올린 예비비라는 작은 공이 중운위 일정을 길게 딜레이시킨 것 같아서 죄송하다. 예비비를 꺼낸 이유는 7.8억이라는 예산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료를 받는 것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고 자료를 받는 것 이상으로 예비비라던지 차기 이월자금을 좀 더 풀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등록금환불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다.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하는 건 자료를 받는다고 7.8억 이상의 예산이 뚝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차기 이월자금과 예비비를 학교 측에서 좀 더 풀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유, 방금 간호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

총: 만약에 예비비가 합리적인 곳에 사용이 되었고, 남은 금액이 없고, 각 부서장들이 완강하게 등록금환불의 재원으로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다.

사과정: 사과대는 우선 예비비를 요청하는 이유도 7.8억을 납득하지 못해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금환불의 가용예산을 학교 측도 이 등록금환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더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비비가 단순히 시의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환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월자금이라던지 예비비를 조금 더 풀어서 등록금환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

간호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듣기로는 이월자금 자체가 미집행하지 않으면 이월해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건들기 힘들지 않을까. 또 2021년도 본예산안에서 쓰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으면 이걸 배제하고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예비비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되는게 그렇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알아보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총: 그러면 내일 오전 중에 예비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오는대로 검토하고 3차 회의 소집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될지?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간호.비: 간호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 의견)

#### 4. 기타 안건

총: 저희가 방학 중에 불법카메라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월 말부터 불법카메라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결정해야 할 게 있다. 스티커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수 중이라 할 것인지 전수완료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작년에는 전수 중이라는 문구를 채택해서 부착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간호.비: 전수중으로 한 이유가 전수 완료로 할 경우에는 전수 완료 스티커 확인하고 카메라를 다시 설치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중으로 하되 상시 점검 중인데 무작위로 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 위화감이라고 해야 하나 더 설치 못하게 그렇게 하면 어떨지?

인문.정: 인문대학도 간호대비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총: 그러면 전수중이라고 하고, 그 밑에 별표해서 상시점검중이라는 문구 넣을지?

간호.비: 더불어서 불법카메라 스티커 아래에 카메라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여기로 연락달라 라는 연락처 넣으면 어떨지? 밑에 중앙운영위원회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그 아래 연락처를 기재하면 바로 신고접수가 될 것 같다.

총: 밑의 문구는 63대 총학생회 곱하기 63대 중앙운영위원회라고 기재가 돼서 스티커가 발주가 되는데 전수중도 넣고 상시점검중도 넣고 밑에 단체도 넣어버리면 그 조그만한 스티커에 다 들어갈 수 있을지?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간호.비: 한 줄 더 들어간다고 가독성이 떨어질까 싶습니다만

인문.정: 조그만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크게 만들면 안 되는지?

총: 사이즈가 8 곱하기 8이라고 한다. 더 크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인문.정: 8곱하기 8밖에 없는지, 다른 사이즈는 없는지

부총: 일단 저희가 필요한 멘트를 다 수합해서 종이크기나 배열 같은 건 홍보국장님께서 점검이나 선택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필요한 멘트를 수합하는 걸로 하자.

간호.비: 근데 8 곱하기 8이면 글씨가 10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는 가독성있게 잘 들어갈 것 같아서 상관 없을 것 같다.

총: 그러면 일단 말씀해주신 전수중, 상시점검중, 단체이름, 신고처. 제 번호겠쥬 모든 것들 넣어보고 홍보

국장님께서 디자인 시안 제작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번호를 막 써놓으시면 괜찮을지?

총: 제 번호 다 팔려서 괜찮다.

인문.정: 그럼 상관이 없겠다.

총: 어쩔 수 없다. 숙명이다. 그러면 말씀해주신대로 디자인 시안 작업하겠다. 디자인 빠른시일 내에 제작하고 발주넣고 스티커 오는대로 전수조사 시작하도록 하겠다. 예상시기는 2월 말 정도로 될 것 같고, 스티커 발주하는 대로 오전오후 시간대 투표 올려서 단과대별로 탐지기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정 조율하도록 하겠다.

간호.비: 단과대 건물배치도 함께 올려주는지?

총: 네

총: 질의사항 있을지?

인문.정: 리더스포럼 질의사항 언제까지 보내드리면 될지?

총: 리더스포럼 관련해서 중운위 의견 전달드리고 답변오는대로 질의서 취합 게시글 만들도록 하겠다.

간호.비: 단위요구안은 금일 중에 보내주시는지?

총: 정리중에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답변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미비한 답변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한 번 더 질의서 송부하도록 하겠다.

사과.정: 조사위 관련해서 조사위가 너무 딜레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희 저번주에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수합을 했고 저번주에는 제3자, 당사자 어떤 질문을 보낼지 논의를 완료했는데 아직 까지도 질의서가 송부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정도면 1학기가 끝날 때 까지 조사위를 할 것 같아서 혹시 질의서 완성분을 언제 공유해주시고 언제 송부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부총: 먼저 설 연휴가 끼었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서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로는 발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문.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사위 관련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 특방이 아니라 조사위 특방에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 네 알겠습니다.

총: 네 추가 기타안건

간호.비: 안건은 아니고 그냥 질의인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언제까지 ZOOM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총: 우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려야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을까. 괜히 저희 열여섯명 모여서 확진자 터지면 그렇다. 좀 보수적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학.정: 혹시 졸업장 관련해서 단위별로 공통적으로 공지되는 공지가 있을지?

총: 졸업장 말씀이신지.

약학.정: 네. 단위별로 전달받은 게 있을지?

총: 졸업장이라고 하면 개개인마다

간호.비: 저희 단위같은 경우는 간호대학 졸업식, 학위수여식이 19일부터다. 단과대학 다 19일인데 그때부터 일주일간 학교에 방문을 하면 학교 직원분이 나눠주신다 서명하고 가져가게끔. 각 교지팀에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지팀 한 번 연락해보셔라.

약학.정: 알겠다.

인문.정: 다이어리를 웰컴박스에 같이 넣어서 보낸다고 총학생회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각 단과대 교지팀에는 잘 전달이 된 것인지?

총: 우선 신입생 웰컴기프트백 주무부서는 학생지원팀이다. 기프트백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관련해서 초안이 나와있는 상태도 최종본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교학지원팀에도 인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총: 지금까지 결정된 웰컴기프트백 내용물은 총장 서신 들어가고, 총학생회 서신 들어가고, 푸앙이 세트 들어가고, 다이어리 들어가고, 중앙대학교가 박힌 마스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미정이다. 확정되면 중운위에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통공.정: 개인적으로 여쭙보고 싶은 게 있다. 안성캠퍼스에 올해부터 첨단소재공학과라고, 공과대학인데 안성캠퍼스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는데 저희 단운위에서는 거기서 뽑힌 대표자를 저희와, 서울캠퍼스에 있는 다른 공대와 함께 같은 선상에 놓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중운위에서 단운위 의견을 취합하라 할 때 첨단소재공학과 의견도 같이 취합해서 드리는 게 문제되지 않는지 여쭙보고 싶다.

총: 우선 서울캠 공과대학 소속이시기 때문에 그 과의 의견도 당연히 서울캠 공운위 의견으로 수렴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통공.정: 그렇게 되면 추후에 총학 측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첨단소재공학과가 참여가 가능한지?

총: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총학생회 행사 뿐 아니라 공대에서 주최하시는 행사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공대 회장님께서 첨단시스템공학과를 서울캠 공운위로 포함시킬것인지 안성캠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내부에서 논의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는데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괜찮을지?

통공.정: 알겠다.

총: 추가안건 없으면 10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모두 고생 많으셨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